

# 영등할망의 바람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영등할망은 제주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주 사람들을 구한 영등할망의 이야기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위안을 주었다.



**한림해안로** |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354-1 ~ 한림읍 귀덕리 3027-1(약 7.6km)

**귀덕로**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236-4 ~ 한림읍 귀덕리 2074-3(약 2.9km)

**진질길**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58 ~ 한림읍 귀덕리 4142-2(약 0.4km)

**수원1길** |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822-2 ~ 한림읍 수원리 731-1(약 0.3km)

**한수1길** |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858-5 ~ 한림읍 한수리 913-1(약 0.4km)

**대림로**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354-1 ~ 한림읍 대림리 276(약 1.6km)

**장원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394-1 ~ 한림읍 상대리 2761-2(약 1.9km)

**강구로**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70-7 ~ 한림읍 상대리 3264-4(약 2.3km)

**한림뱅디길**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582-1 ~ 한림읍 상대리 4319(약 1km)

**드르밧길**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54 ~ 한림읍 동명리 394-2(약 1.7km)

## 한림해안로 | 영등할망

한림해안로는 옹포리에서 귀덕리까지 한림읍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다. 해안가의 여러 포구들을 지나면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이다. 한림해안로가 끝나는 부근에 있는 귀덕리에는 해산물과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풍농신 영등할망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외눈박이섬 가까이 살고 있던 영등할망은 어느날 외눈박이 거인들에게 잡힐 위험에 처한 어부들을 숨겨주었다. 그리고 어부들에게 육지에 닿을 때까지 관음보살을 멈추지 말고 외치라고 했으나 어부들은 육지에 가까워지자 살았다는 기쁨에 외는 것을 그치고 만다. 그러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어부들은 다시 외눈박이섬으로 끌려간다. 영등할망은 다시 한 번 어부들을 구해주고는 외눈박이 거인들에 의해 머리와 몸, 팔다리가 찢겨 죽음을 맞는다. 영등할망의 시신이 제주도 해안으로 떠밀려오자 어부들이 자신들을 구해 준 은혜에 감사하며 영등할망을 기리는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것이 해안가 마을에서 치러지는 영등굿의 기원이다.



영등할망

영등할망은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박이섬에 머물다가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귀덕리의 북덕개로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다. 한라산 영실에 올라 오백장군을 만나고, 어승생을 거쳐 산방굴, 교래마을 등을 돌며 꽃 구경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제주 전역을 돌면서 농작물과 해산물의 씨를 뿌려 번식이 많이 되게 해주고, 2월 15일에 우도를 거쳐 돌아간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은 이 시기에 날씨가 좋으면 영등할망이 딸과 함께 온 것으로, 날씨가 궂으면 며느리와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영등할망은 보말을 까서 먹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속이 비어있는 보말이 있으면 영등할망이 다녀간 증거라고 여긴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머무는 보름동안 해녀들에게는 일종의 금기가 유행처럼 번진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는 안되고, 물질이나 농사일, 집안일을 하면 부정이 탄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붕을 고치면 비가 새고,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끼고, 밭에 씨를 뿌리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심지어 빨래를 하면 벌레가 생긴다고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에게 영등할망은 험난한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든든한 수호신이었다.

## 귀덕로/진질길 | 귀덕리



굼들애기물

영등할망의 전설이 전해오는 귀덕리는 한림읍의 가장 동쪽 해안가 마을이다. 일주서로에서 **귀덕로**를 따라 들어가면 귀덕리까지 이어진다. 예전에는 바닷가에 석천도(石淺島)라고 불리는 지명이 있어 석천촌(石淺村)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고려시대 이곳에 귀덕현(歸德縣)이 설치된 후로 귀덕리라고 했다고 한다. 귀덕2리 해안가에는 **진질길**이라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중산간마을에서 바다까지 내려오는데 길이 길어서 길다라는 의미의 제주어 '진'과 길을 뜻하는 '질'이 합쳐진 '진질'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

다. **진질길** 인근 해안가에는 굼들애기물이라 불리는 용천수가 있다. 이 물은 인어가 목욕하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온다. 인어는 사람들이 없을 시간을 골라 이 물에서 목욕을 했는데 어느 날 상처를 입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용천수에 들어가 상처를 치료해야 했다. 사람들은 인어가 놀랄까봐 모른 척 해주었다. 그러자 상처가 치료된 인어가 바다로 돌아가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한다. 그 후 이 물에서 목욕을 하면 잔병이 없어졌다고 한다.

## 수원1길 / 한수1길 | 수원리와 한수리

**수원1길**이 지나는 수원리(洙原里)는 해녀들이 많다는 뜻에서 조물케 또는 잠수포로 불렸다. 다른 설에는 해안가에 있던 용천수가 밀물 때 바닷물에 잠긴다는 데서 연유했다고도 한다. 그러다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마을 이름이 좋지 않아 그런 것이라 해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의 지명을 차용해 수원리로 바꿨다고 한다. 수원리에는 용과 관련된 구룡석 전설이 전한다. 옛날 수원리 바닷가의 용구못에 아홉 마리의 용의 새끼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매일같이 싸웠다. 그러자 비바람이 계속되고 바다가 험해 마을 사람들은 편할 날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용들의 싸움을 제발 멈춰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옥황상제는 여의주를 돌로 만들어 버렸다. 용들은 결국 여의주를 얻지 못해 이무기가 되어 하늘에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한수1길이 지나는 한수리(翰洙里)는 큰 물이 있는 포구를 뜻하는 하물개 또는 연대가 있는 곳이라는 연되개로 불렸다. 해안가에의 솔패기물과 죽도연대터에서 이 이름들의 유래를 추정할 수 있다. 이후 한림과 수원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한수리라고 했다고 한다.

### 대림로 / 장원길 | 대림리와 장원동

수원리 남쪽에 있는 마을인 대림리의 중심도로는 **대림로**이다. 대림리는 설촌 연대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림리와 한수리 등을 포함하는 큰 마을이었다. 이후 주변 마을들이 점점 커지면서 분리되어 나가 지금의 규모가 되었다. 과거에는 큰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림(大林)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대림리 이전에는 선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선돌은 대림리와 수원리의 경계에 있는 높이 2m가 넘는 큰 돌을 말한다. 마을을 상징하는 커다란 돌로 사람들은 이 바위가 대림리의 허약한 지세를 보완해 준다고 믿었다.

대림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장원길**은 과거 진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다. 긴 동산이라는 뜻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장원동이 되었다. 원래는 한림2리에 속하던 마을이었는데, 장원리로 분리되었다가 한림3리가 되면서 한림리에 속하게 되었다.

### 강구로 / 한림뱅디길 / 드르밧길 | 강구리

한림리 남쪽으로는 강구리가 있다. **강구로**는 강구리(江龜里)지역을 지나는 길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의 유래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마을에 있는 강구못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서라고도 하고, 잔잔한 물 가운데 있는 거북이를 의미한다고도 한다. **강구로** 서쪽에는 고유지명이 반영된 길들이 있다. 그 중 **한림뱅디길**은 한림리에서 상명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뱅디는 제주어로 평평한 곳을 말한다. 이 지역에 있었던 뱅디마을을 연상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한림뱅디길**과 만나는 **드르밧길**은 제주어로 들판을 의미하는 ‘드르’와 밭을 의미하는 ‘밧’이 합쳐져서 넓은 밭이란 의미이다. 이 길들의 이름처럼 이 주변은 오름과 같이 높은 지대가 없고 넓은 밭들이 펼쳐져 있다.